

<2025년 다해>

주님 수난 성금요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준 비

※ 전례 봉사자

- * 해설자: 전례위원 1명(수난기 낭독)
- * 독서자: 김효경 릿타(제1독서), 정명용 미카엘(제2독서)
- * 수난기 낭독자: 해설자, 허희숙 마리아, 구희선 스텔라
- * 복사: 변가인 헬레나, 정이한 다윗(주·부복사와 초복사를 함께 담당)
- * 예식에 필요한 물건(부복용 매트, 테이블, 십자가)을 옮겨줄 봉사자 몇 명

※ 준비 (장소 및 내용)

- * 제의실: 제의(붉은색), 십자가 경배용 십자가
- * 해설자: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서(프린트)
- * 제대앞: 주례사제가 부복할 방식 또는 매트, 십자가 놓을 상
- * 수난 복음 낭독 위치: 제대 위 독서대
- * 십자가 경배 예물 바구니(봉헌함)

※ 시작 전 준비 및 공지 사항

- * 지휘자는 전례 시작 전에 모든 신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 중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화답하는 부분을 연습한다.
- * 해설자는 전례 시작 전에 신자들이 수난 복음의 군중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연습한다.

이날과 다음 날에는 오랜 관습에 따라 교회는 고해성사를 제외하고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 제대는 십자가도 촛대도 제대포도 없이 완전히 벗겨 둔다.

주님 수난 예식

전례시작 전에 제대 앞 중앙에 사제가 부복할 방석(매트)을 미리 깔아 놓는다. 제의실에서 주례사제가 종을 치면 해설자가 아래의 해설로 예식을 시작한다.

▶ 해설: 오늘은 많은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식은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식 전체는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가져온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집중됩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례사제는 제대 앞에 이르러 부복하고, 복사들과 다른 사제는 무릎을 꿇는다. 사제가 부복하면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례사제가 일어나서 제단 위로 올라가면 해설자는 신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안내하고 다른 봉사자는 방석(매트)을 제의실로 치운다.

▶ 해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례사제는 제단 위로 올라가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팔을 벌리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기도

+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주례사제의 기도가 끝나면 해설자는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1부 말씀 전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 말씀 전례

제1독서 <그가 으스스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13-53,12

¹³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송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¹⁴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¹⁵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53.1}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²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³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⁴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⁵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⁶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⁷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⁸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⁹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짖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¹⁰ 그러나 그를 으스스드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¹¹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¹²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1(30),2와 6.12-13.15-16.17과 25(◎ 루카 23,46)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

○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이,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

제2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4-16; 5,7-9
- 형제 여러분, ¹⁴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¹⁵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¹⁶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 ^{5,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주님의 수난기는 촛불, 분향, 인사 없이 또 책에 십자 표시를 하지 않고 읽는다.

-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18,1-19,42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²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³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 ✖ “누구를 찾느냐?”
- ⁵ 그들이 대답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요.”
-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 ✖ “나다.”
-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⁶ 예수님께서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⁷ 예수님께서서 다시 물으셨다.
- ✖ “누구를 찾느냐?”
- 그들이 대답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요.”
- ⁸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 ✘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 ⁹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¹⁰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¹¹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 ✘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 ¹²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¹³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¹⁴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¹⁵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¹⁶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¹⁷ 그때에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 “나는 아니오.”
- ¹⁸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¹⁹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²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²¹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 ²²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 ²³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 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 ²⁴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²⁵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 “나는 아니오.”
- ²⁶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 ²⁷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²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²⁹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 ³⁰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 ³¹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 ³²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³³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³⁴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 ✘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³⁵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 ³⁶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³⁷ 빌라도가 물었다.
-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 ³⁸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진리가 무엇이오?”
-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³⁹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원하오?”
- ⁴⁰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외쳤다.
- ◎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 바라빠는 강도였다. ^{19,1}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²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³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 댔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 ⁴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 ⁵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자, 이 사람이요.”
- ⁶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말하였다.
-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 ⁷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 ◎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 ⁸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⁹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어디서 왔소?”
-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⁰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 ¹¹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 ¹²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쳤다.
- ◎ “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 ¹³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빠타라고 한다. ¹⁴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 ¹⁵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 ◎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 ¹⁶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¹⁷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¹⁸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¹⁹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²⁰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²¹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 ²²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 ²³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²⁴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 ※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²⁸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 ※ “목마르다.”
- ²⁹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 ³⁰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 ※ “다 이루어졌다.”
-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 **해설:** 모두 무릎을 꿇으시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적절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주례사제가 일어서면 해설자는 안내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 ³¹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³²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³³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³⁴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³⁵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³⁶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³⁷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³⁸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³⁹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⁴⁰ 그들은 예수님의 시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⁴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⁴²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주님의 수난기를 봉독한 다음에 사제는 짧은 강론을 한다.

보편지향기도

이어서 보편 지향 기도로 말씀 전례를 마친다. 보편 지향 기도는 주례사제가 제대에서 바친다. 그 동안 신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 있을 수 있다.

- ▶ **해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제 교회는 오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구원과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장엄 보편지향기도를 바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상에서 팔을 펼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사제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I. 교회를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참묵 기도

그다음에 사제는 기도한다.

-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 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I. 교황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참묵 기도

그다음에 사제는 기도한다.

-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II. 모든 성직자와 신자를 위한 기도

- 우리 주교 마리오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묵 기도

그다음에 사제는 기도한다.

-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V.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참목 기도

그다음에 사제는 기도한다.

-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 주시니
성자의 양 떼를 굵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VII.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참목 기도

그다음에 사제는 기도한다.

-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2부 십자가 경배

보편 지향 기도를 마치고, 이어 사제가 십자가 경배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래의 해설을 한다.

- ▶ 해설: 지금부터 오늘 주님 수난 예식의 중심 예식인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 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엄숙히 맞이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직접 경배하면서, 십자가의 원인이 된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 청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시합니다. 사제의 선창에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화답하신 다음, 깊은 절을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 주는 예식

둘째 양식

사제는 제의실에서 십자가를 들고 촛불을 켜 든 두 복사들과 함께 성당 입구로 간다. 거기서부터 성당 가운데를 지나 제단으로 행렬하여 나아가며, 성당 입구와 중앙과 제단 앞에서 각각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라, 십자 나무’를 노래한다. 모든 이는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화답한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침묵 가운데 경배한다.

- +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 ◎ 모두 와서 경배하세.

거룩한 십자가 경배

제대 앞에 도착한 사제는 제대 앞에 미리 마련해 놓은 탁자에 십자가를 올려두고, 복사들은 초를 십자가 양 옆에 놓는다. 다른 봉사자는 준비된 자리에 십자가 경배 예물을 넣을 봉헌 바구니를 준비한다. 경배 예절 준비가 끝나면 해설자가 안내한다.

- ▶ 해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 예식이 시작됩니다. 교우 여러분은 제대 앞으로 나와 십자가에 깊이 절하며 경배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봉헌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례사제가 십자가에 깊이 절하며 경배하고, 이어서 신자들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하며 경배하고 봉헌한다(십자가에 친구는 하지 않는다). 성가대는 마지막에 경배한다.

십자가 경배가 진행되는 동안 성가대에서 ‘주님의 십자가’, ‘비탄의 노래’, ‘믿음직한 십자 나무’, 또는 다른 알맞은 노래를 무반주로 부른다. 경배를 마친 신자들은 자리에 앉는다.

경배가 끝나면 십자가를 제대에서 가까운 제단 난간에 모시고, 초는 제대 위에 제대포를 씌운 뒤에 미사 때처럼 양 옆에 놓는다.

제3부 영성체

경배 예식이 다 끝나면 복사들은 주수대에 있는 제대포와 성체포를 제대로 옮겨와 펴고 그 위에 십자가 경배 때 들고 온 초와 미사 경본, 마이크를 놓는다. 이때 다른 사제는 감실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제대로 모셔온다. 이어 주례사제가 손을 모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주님의 기도

†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사제는 팔을 벌리고 모든 이와 함께 기도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제는 팔을 벌린 채 혼자서 기도한다.

†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나이다.

그다음에 사제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기도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낮게 하시며 지켜 주소서.

영성체

사제는 깊은 절을 한 다음, 성체를 조금 높이 받쳐들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교우들과 함께 한 번 말한다.

◎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이어서 사제는 제대를 향하여 서서 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건하게 모신다.

그다음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 그동안 시편 22(21)편이나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영성체 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163 생명의 성체여)
성체 분배가 끝나면 사제는 성합을 감실에 모신다.

영성체 후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 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사제는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그들을 향하여 팔을 펴 들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예식이 모두 끝나면 제대는 다시 벗겨 놓는다. 이후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이 끝났습니다.

내일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도 오후 08:00에 시작합니다.
나가실 때에는 십자가에 깊은 절을 하고 침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거행되는 이 장엄한 예식에 참석한 이는 저녁 기도를 바치지 않는다.